

환경정책위원회

1. 회의 개요

환경정책위원회(Environmental Policy Committee: EPOC) 산하 환경정보·전망작업반(Working Group on Environmental Information and Outlook: WGEIO) 회의가 2004년 10월 13~15일까지 OECD 본부에서 개최되어 물질흐름 계정 및 지표 등의 의제를 논의하였다.

2. 주요 회의내용

가. WGEIO의 주요 성과 및 향후 사업

동 작업반은 금년을 맞이하여 발족한 지 25년이 되었으며 그동안 환경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 OECD 통계연감 발간, 국가간 파트너십 제고 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정책 연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발한 핵심환경지표(Core Environmental Indicator), 주요환경지표(Key Environmental Indicator), 분야별 환경지표(Sectoral Environmental Indicator), 연계차단지표(Decoupling Indicator) 등은 환경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환경정책 평가 및 국민과의 의사전달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OECD 사무국은 환경데이터 질 향상 계획의 일환으로 단순한 환경조사표(Simplified Questionnaire)를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기존의 환경통계연감은 조사표의 복잡성 등으로 작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다 2년간격으로 발간되어 최신 통계에 대한 회원국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기존 통계 중 매년 자료 갱신이 가능한 주요 분야(환경지출, 대기배출, 수자원 사용 및 하수처리,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산림자원 이용, 토지 이용, 멸종위기 종 등)에 대해서는 동 조사표를 토대로 연간 통계를 작성하고, 나머지 분야는 현재와 같이 2년 단위의 통계연감을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 조사표가 작성되면 앞으로 주요 환경지표와 회원국의 환경성과평가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 환경지표를 활용한 환경성과평가 지원방안 검토

OECD 사무국은 지난 4월 개최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환경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여섯 가지 개선 권고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환경지표와 환경성과평가간 연계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어진 토의에서 멕시코, 호주 대표는 환

경정보·전망작업반 관계자의 환경성과평가 참여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OECD 차원의 제도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자 그리스,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 이에 동의하였다.

아울러 독일 대표는 환경성과평가지 환경계정 및 지표의 활용 필요성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해 사무국 과장은 현재 물, 산림분야, 연계차단지표 등 일부 분야에는 이용되고 있으나 물질집약도 등에는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다. 폐기물 사전예방지표 진행상황

OECD 사무국은 폐기물 발생의 사전예방과 자원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폐기물사전예방지표(Waste Prevention Indicator)를 개발하였고, 현재 벨기에와 우리나라에서 동 지표의 시범 적용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결과를 2005년 2월 개최되는 폐기물 예방 및 재활용 작업반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소개하였다.

이 연구결과에 따라 동 지표에 대한 추가 연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중간연구 결과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물질흐름계정 및 지표(Material Flow Account and Indicator)

금년 4월 환경장관회의에서 물질흐름 및 자원생산성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이 통과되었으며, 동 권고안의 후속작업으로 지난 6월

헬싱키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여 OECD의 작업방향 및 범위를 제시하였다.

1) 헬싱키 워크숍 주요결과

워크숍 참석자들은 동 작업에는 점진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는 점, 회원국별로 동 계정 및 지표의 개발 및 사용수준이 다르다는 점, 공급 및 수요 양 측면 모두에 동일한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합의를 이루었다. 특히 회원국간 공동작업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핵심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그밖의 추가작업이나 세부작업은 각 회원국의 사례연구 등을 통해 추진토록 하였다.

동 계정 및 지표의 개발에 관한 공급 측면과 관련해 지역 및 미시경제 보다는 국가단위 및 거시경제 전반에 관한 계정에 중점을 두고, 단기적으로는 간접흐름보다는 직접흐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동 계정 및 지표의 정책 유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주요 산업분야별, 물질별 계정 및 지표가 개발되어야 하나 단기적으로는 대량생산물질과 독성이 높은 소량생산물질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었다.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계정 및 지표 개발과 관련하여 UN의 환경경제통합계정(SEEA), 유럽통계국의 방법론 등 기존의 계정 및 지표와 일치되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지침서(Guidance Document) 개발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를 이루었다.

동 계정 및 지표를 이용하는 수요 측면과

관련해 동 계정 및 지표는 전체적인 계정 및 지표의 틀내에서 적절한 자리매김이 필요하며 국민계정 등 경제계정 및 지표 등과 밀접한 연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동 계정 및 지표가 효과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동 계정 및 지표와 연관 있는 통계, 경제, 환경, 산업, 해양 등 다양한 기관간 효과적인 조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었다.

동 작업의 성과물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홍보책자 및 개발지침서 발간, OECD 공통 지표 개발, 이사회 규정 이행평가보고서가 성과물로 제시되며, 동 작업과정에서 워크숍, 전자토의그룹 구성, 포럼 개최 등을 통해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 토의 결과

독일 등 여러 나라는 동 계정 및 지표 개발 시 정책결정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동 지표가 국가간 비교평가수단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정책의 효과성 제고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urostat는 OECD와 공동으로 물질흐름작업 태스크포스를 발족하여 방법론 개발 등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작업반 모임이 예정되어 있으며, 2005년 2/4분기(5월경) 교육·훈련목적의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소개하였다.

핀란드는 동 계정 및 지표의 사용과 관련해 최근 논의 중에 있는 환경친화적 조세개편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 아울러 지속가능발전 이행 평가시 지속가능 생산 및 소비의 평가에 동 지표가 활용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일본은 동 계정 및 지표를 강제적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소개하면서, 2003년 자원순환형 사회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이행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물질흐름 계정 및 지표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3. 우리나라 정책에 대한 시사점

이번 회의에서 물질흐름 계정 및 지표에 관한 작업의 방향 및 범위가 제시됨으로써 동 계정 및 지표에 대한 OECD의 작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하고 있으므로 동 계정 및 지표의 개발 초기에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OECD 논의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2005년 2/4분기에는 Eurostat와 공동으로 교육훈련 목적의 워크숍을 개최하는바 우리나라 관련 전문가의 참석이 필요하고, 동 계정 및 지표작업에 관련되는 환경부, 산자부, 통계청, 한국은행 등 관련기관간 협조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환경성과평가시 환경통계의 효과적인 활용과 관련하여 환경정보·전망작업반 관계자의 환경성과평가에 대한 주도적인 참여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바 2005년에 OECD 환경

성과평가를 받을 우리나라로서는 동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환경성과평가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남광희 주OECD대표부 1등서기관
khnam03@mofat.go.kr】